

LIG D&A, 수주 둔화·로봇 적자 이어 법적 리스크 ‘겉악재’

6개 방위사업서 뇌물수수·평가조작 ‘1.7조 규모’ 전자전기 사업 핵심쟁점 뇌물공여 인정 시 입찰참가 2년 제한 K-방산 신뢰 위해 철저히 규명해야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 &A)가 수주 둔화와 로봇 신사업 부진에 이어 법적 리스크까지 떠안게 됐다.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뇌물수수·평가 조작 혐의를 인정하면서 진행 중인 대형 방산사업은 물론 향후 국내 신규 수주까지 파장이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사청 공무원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6개 방위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LIG D&A에 유리하게 평가를 조작하고



LIG D&A 판교하우스 외경.

/LIG D&A

현금 3억2000만원과 22억원 상당의 용역계약 추천권을 받은 혐의다. A씨에게 평가를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LIG D&A 임원 B·C씨의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조7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이다. 검찰은 특혜가 제공된 6개 사업 중 3개가 전자전기 사업의 선행기술 사업으로, 평가 조작이 후속 수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사건 처리 결과가 사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LIG D&A는 이와 관련 “전자전기 사업은 공정한 평가과

정을 거쳐 큰 점수 차로 선정됐다”는 입장이다.

임원들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 향후 국내 방산사업 입찰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상 관계 공무원에게 2억~5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2년간 제한된다. 검찰이 적용한 뇌물공여액이 재판과 행정 절차에서 인정되면 해당 기준에 들어갈 수 있다.

LIG D&A의 2분기 말 수주잔고 24조 5700억원 가운데 내수는 10조5200억원으로 약 43%를 차지한다. 방사청은 오는 2033년까지 약 7535억원을 투입하는 장기 리공대공유도탄 개발사업도 추진 중이다. LIG D&A의 참여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세미나에서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체계개발 성공 전략’을 발표하는 등 관심을 보여왔다.

신규 수주가 주춤한 상황에서 입찰제한 가능성은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LI

GD&A의 수주잔고는 2분기 들어 전분기 대비 약 3% 줄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수한 미국 로봇기업 고스트로보틱스도 상반기 영업손실 252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최기일 상시대 교수 겸 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은 “수원원대 뇌물이 오가고 업체 임원까지 연루된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K방산의 신뢰도 강화를 위해 업체 차원의 관여 여부와 방사청 내부의 추가 유착 가능성까지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한화 대전사업장 사고 당시 그룹 총수가 직접 대국민 담화를 냈던 것처럼 이번 사건도 신의한 대표가 직접 나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방사청장 역시 조직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dhale@metroseoul.co.kr



SK이노, 7년 만에 SKIET 다시 품는다

합병으로 재무 안정성·수익성 개선 내년 1월 1일 합병 마무리 예정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물적분할해 설립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를 7년 만에 흡수합병한다. 전기차 시장 둔화와 중국 업체들의 공급 확대·가격 경쟁으로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체 자금조달 여력까지 줄어든 SKIET를 모회사에 편입해 재무 부담을 낮추고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직·기능 통합과 금융비용 절감을 통해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을 연간 약 600억원 개선해 합병 후 2~3년 안에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SK이노베이션은 26일 ‘2026년 SK이노베이션 합병설명회’를 개최하고 SKIET 합병을 통해 재무 안정성을 높이고 분리막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과 SKIET는 전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안을 의결했다. SK이노베이션이 존속회사로 남고 SKIET가 소멸하는 방식이다. 양사는 오는 11월 24일 합병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SKIET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LiBS)을 생산

하는 기업이다. SK이노베이션은 소재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4월 분리막 사업을 물적분할했으며 SKIET는 2021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그러나 2024년부터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계획을 조정하면서 분리막 판매가 감소했다. 중국 업체들의 생산능력 확대와 가격 경쟁 심화도 수익성을 끌어내렸다. SKIET의 올해 1분기 공장 가동률은 약 20%에 머물렀고 영업손실이 이어지면서 자체 차입 여력도 축소됐다. SK이노베이션은 합병이 늦어질수록 SKIET의 차입금 상환과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고 재무 위험이 계열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합병 이후 SKIET는 SK이노베이션 내 분리막 사업부로 편입된다. 투자와 생산, 판매 등 주요 의사결정을 일원화하고 중복 조직과 관리 기능을 통합한다. SK이노베이션의 연구개발(R&D) 역량과 SKIET의 제품 개발 역량을 결합해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주요 고객 중심으로 생산·마케팅 체계도 효율화한다.

전기차용에 집중된 분리막 수요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로 확대한다. SK이노의 ESS 사업과 연계해 관련 제품을 개발·공급하고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판매 감소를 보완할 계획이다. 생산거점은 중국 공장 매각과 증평 공장 가동 중단을 거쳐 약 2조원이 투입된 폴란드 공장을 중심으로 재편한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직·기능 통합과 금융비용 절감으로 연간 약 600억원의 EBITDA 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동 연구개발과 추가적인 원가 절감까지 더해 영업이익은 2029년께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차 시장 회복과 ESS용 분리막 판매 확대가 이어지면 흑자 전환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합병비용은 SKIET 보통주 1주당 SK이노베이션 보통주 0.1174540주다. 합병신주는 기존 SK이노베이션 발행주식의 약 2.6% 규모로 내년 1월 18일 상장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합병을 통해 분리막 사업의 재무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공급 안정성과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 분리막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

지난해 출생아 수 18년 만에 최대폭 늘어

데이터처 ‘지난해 출생 통계’

지난해 출생아 수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여성 1명이 생애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2년 연속으로 반등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300명으로 전년대비 6.7%(1만6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아 증가폭은 2007년의 10.0% 이래로 최대다.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43만8400명)부터 8년 연속 감소해 2023년 23만 명까지 주저앉았다가 2024년(23만8300명) 반등에 성공해 25만 명대를 회복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종료로 결혼이 크게 늘면서 시차를 두고 출생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각종 정부 지원책의 영향으로 결혼과 출생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 개선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박현정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출생아 증가 요인에 대해 “2023년 5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혼인이 회복된 영향과, 30대 여성인구가 증가한 영향이

있다”며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전년(0.75명)보다 0.05명 늘었다. 지난 2023년 0.72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2년째 증가 흐름이다.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20대 초반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출산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법적 혼인상태별 출생을 보면 혼인 중의 출생아 비중은 94.5%, 혼인 외의 출생아 비중은 5.5%를 차지했다. 혼인 외의 출생아 비중은 5.5%로 0.3%포인트(p) 감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양주~강남 ‘30분’ GTX-C, 집값 견인할까

경기 양주시 덕정역~수원역 이어 교통망 개선으로 미분양 해소 기대

공사비 문제로 착공식 이후 첫 삽을 뜨지 못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사업에 재시동이 걸렸다.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일부 수요자가 수도권 외곽으로 눈을 돌리는 가운데 GTX-C가 경기 북부 주거의 선택지를 넓히고 침체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전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GTX-C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을 의결했다. GTX-C는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86.6km를 잇는 노선이다. 급등한 공사비가 기존 협약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시공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 공사비를 증액한 변경안이 정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정부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GTX-C가 개통되면 양주시 덕정역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역까지 이동시간이 약 80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든다. 양주의 정부 등 경기 북부가 강남 30분대 통근권에 들어가는 셈이다.

먼저 개통한 GTX-A의 경우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이동시간을 기존 70분 이상에서 약 19분으로 단축했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신축 아파트 선호 등이 맞물리며 동탄역 인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

가 거래가 이어졌다.

시장에서는 GTX-C 본공사가 현실화하면 양주시 덕정역과 의정부역 등 정차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며 부동산이 살아날지 주목한다.

종점이 들어서는 양주는 미분양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양주의 미분양 주택은 2407가구, 준공 후 미분양은 374가구에 달한다. 전체 미분양은 평택 3076가구에 이어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양주를 8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주택이 1000가구 이상이고 공동주택 채고 대비 미분양 비율이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나 해소 저조, 추가 미분양 우려 등의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대상이다.

교통망 개선이 실제 주택 수요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교통 외 여건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 정부가 8·13 대책 후속 조치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증가분을 총량관리 실적에서 제외하면서 집단대출 여건은 일부 나아질 전망이다. 다만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기존 집을 팔고 갈아타려는 수요자도 입주 때까지 집이 팔릴지,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기 어렵다. 역 접근성을 높이는 연계교통과 교육·상업·의료시설 등 생활 인프라 구축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